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23년 5월 7일(주일) 제1441호



온누리와 함께, 사랑 가득한 5월!

7일 차세대 '어린이주일' ... 선물 나눔, 놀이기구
8일 '부모맞춤전도집회', 14일 '어버이주일' 이벤트
14일, 21일 '교사주일' 행사, 20~21일 '입양위탁행사'

온누리와 함께 사랑 가득한 5월을 보낸다. 온누리교회가 가정의 달 5월에 감사와 사랑을 선물하는 풍성한 행사를 준비했다. 5월 7일(일)은 어린이주일이다. 차세대사역본부에서 부서별(예수님의꿈아이, 꿈이자라는땅, 파워웨이브)로 간식을 나눠준다. 5월 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서빙고와 양재온누리교회, 도곡교육관에 놀이기구(바이킹, 에어바운스, 회전그네, 기차 등)도 설치한다.

5월 8일(월)에는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전도집회 '행복드림콘서트'가 막 오른다. 세시봉 윤형주, 크로스(가스펠 보컬 밴드)가 게스트로 출연하고, 이재훈 담임목사가 메시지를 전한다.

5월 13일(토)과 14일(주일)은 '어버이주일'이다. 어버이 은혜에 감사하고, 사랑과 존중을 표현하는 의미로 주일예매에 참석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준다.

5월 14일(서빙고, 양재, 도곡)과 21일(국내 캠퍼스)에는 '교사주일' 행사가 열린다. 차세대부서에서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한다.

5월 20일(토)과 21일(일)에는 '입양위탁행사'가 열린다. 사회선교본부 제이홉사역팀(입양위탁커뮤니티)에서 교회 로비에 데스크를 설치하고 입양위탁 문화 정착과 활성화를 위해서 사역팀과 관련 기관을 소개한다.

대학청년부는 5월 한 달 동안 '가정의 달 블레싱'을 한다. 대학청년부 8개 공동체 18개 팀이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을 찾아가 선물 전달, 예배, 체험학습, 멘토링 사역, 길거리 전도 등을 한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행복한 주차, 배려하는 교회

양재온누리교회가 주차캠페인을 한다. '행복한 주차, 배려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대중교통 이용하기, 교회 주차장 양보하기, 교회 인근 주차장 이용하기, 예배드리고 바로 출차하기, 교회 주차장 이용시간 지키기 등을 실천한다.

주일에는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교회에 오고, 교회 주차장은 70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및 만 3세 이하 유아 동반자와 다자녀 가구, 새가족에게 양보한다. 양재역 환승 주차장(4시간 무료)과 일동제약 지하주차장을 이용한다. 양재역 환승주차장에서 교회까지 셔틀버스도 운행한다(오전 6시 30분~오후 4시 30분). 교회 주차장은 2시간 이내만 이용할 수 있다. 토요일 1부, 일요일 1부, 5부, 6부 예배는 누구나, 일요일 2부, 3부 예배는 주차증 소지 차량만, 일요일 4부 예배는 주차증 소지 차량이나 2인 이상 탑승 차량만 이용할 수 있다. 예배가 끝나면 다음 예배를 위해 신속하게 출차해야 한다. 개인 차량을 장기간 교회에 주차해두는 것도 삼가야 한다.

한편 양재온누리교회 주차사역팀에서 동역자를 모집한다. 토요일과 일요일 교회 주변에서 차량 통행 인도 및 주차 안내를 한다.

문의: 02-570-7430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5월 28일까지 '달려라 풍당'

다음세대를 위한 후원챌린지 '달려라풍당'이 5월 28일(일)까지 이어진다. 벌써 성도 2,700명(5월 2일 기준)이 동참하고 있다.

'달려라풍당' 참가자들은 5월 28일(일)까지 걷기, 달리기, 라이딩, 인라인스케이트, 등산 등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하고, 운동한 만큼 다음세대를 후원한다. '달려라풍당' 후원금 전액은 기독OTT '풍당' 오리지널 콘텐츠 <고고 바이블> 글로벌 버전, 키즈 콘텐츠 <우리 몸으로, 풍당!>, <바이블북: 성막 대작전> 제작과 '풍당교회학교' 사역에 사용된다.

캠퍼스별 '달려라풍당데이'는 5월 20일까지 진행된다. 5월 13일(토) 수원(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강동(올림픽공원), 인천(송도글로벌파크), 부천(인천 월미산), 영종(씨사이드파크), 세종교육관(금강보행교), 20일 부천(한강 아라뱃길)에서 달려라풍당데이를 개최한다.

/ 홍하영 기자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 참가신청

5월 14일까지 온누리교회 홈페이지 및 QR코드



된다. 현장 참여나 온라인 참여 중에서 선택하면 된다. 온라인 참여를 신청한 성도에게는 회

복사역본부에서 명찰과 교재를 택배로 발송해 주고, 유튜브 접속링크를 보내준다. 회비는 3만원이다.

2023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은 5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막 오른다. 온라인(실황 중계)으로도 진행된다.

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에서는 정신건강 및 상담 전문가 8인이 마음과 정신, 영혼의 회복을 돕는 강의를 요일별 주제에 따라 한다. 17일에는 '감정돌봄'을 주제로 권수영 교수(연세대 상담코칭학과), 박상미 대표(더꿈감미음학교), 남은영 교수(서울여대 아동학과)가 강의

하고, 배우 최강희 간증 영상이 상영된다. 18일에는 '정신돌봄'을 주제로 채정호 교수(서울성모병원 정신의학과), 남윤영 박사(한마음정신회복예배 상담의) 강의, 사랑채버 특순, 패널 토크쇼 '강사와의 대담'이 이어진다. 19일에는 '영혼돌봄'을 주제로 이만홍 교수(로템정신과 의원 원장), 채규만 교수(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강의한다. 스킷드라마 특순도 한다

<관련기사 3면>

문의: 02-3215-3532

/ 정현주 기자



The Way, The Truth and The Life

길
진리
생명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빌 3:10~11).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와 부활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알고자 한다”, “이르고자 한다”고 말합니다. ‘알고자 한다’는 것은 다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할 게 많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지식적인 앎이 아닙니다. 체험적인 앎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현재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를 체험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목적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것은 진노를 당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깨어 있든 자고 있든 그분과 함께 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9~10절).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고 있든지 그분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입니다. 우리에게서는 부활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는 게 부활의 목적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삶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이어져야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세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롬 6:3).

하나님 구원의 해결책은 개선이 아닙니다.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고치는 게 아닙니다. 죽음입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주시는 약속은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음을 경험하는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니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골 3:1~2).

“그러나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엡 2:4~6).

이미 완료된 사건으로 설명하는 것은 우연도 아니고, 실수도 아닙니다. 의미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리고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합니다. 이것도 완료된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을 경험하는 일을 미래만이 아니라 현재의 삶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자,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는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이전의 생명이 아닙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차원입니다. 성육신하신 생명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우리 육신의 생명이 완전히 끊어진 것처럼 완전한 죽음을 통과해 새롭게 살아나신 부활의 생명입니다. 부활의 생명은 사탄을 이긴 생명이고, 세상을 이긴 생명이고, 육신을 이긴 생명이고, 지옥을 이기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이 미래 우리에게 약속된 것만이 아닙니다. 현재 삶 속에서도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부활의 생명이 있습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시대와 세대에 걸쳐 감춰져 온 비밀이었었는데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성도들에게 알리고자 하

셨습니다. 이 비밀은 여러분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이십니다”(골 1:26~27).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 비밀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만 믿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죽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과 함께 우리도 부활해서 새 생명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만 믿는 게 아닙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성령 안에서 우리 안에 임재하심을 믿습니다. 미래에 확실히 약속된 부활과 영광을 지금 삶 속에서 맛보고, 경험하고,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려고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의 생명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인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입니다”(골 3:3~4).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사건, 성육신을 제외한 그분의 죽음, 그분의 부활, 그분의 승천, 그분의 재림에 함께 연합하고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죽음과 함께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받음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하늘에 올리심을 받아 그분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때 함께 재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항상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있을 영광을 바라볼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빨리 죽기를 소망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것처럼 총만하다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임재를 바라보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 깨어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지 않는 삶은 영적으로 잠자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5장 6절에서는 악한 삶을 ‘자는 삶’이라고 비유합니다. 원문을 보면 ‘깊아떨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과 무관한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것은 다시 오실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무감각한 상태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둠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의 모습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성도에게는 세 가지 모습이 나타납니다. 첫째, 깨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임재가 있기에 깨어 있습니다. 깨어 있는 성도들은 미래에 구원이 보장되었다고 현재의 삶에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미래에 대한 구원의 기대감만이 아니라 현재 체험하는 구원의 간박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으로 평가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신부와 같습니다. 신랑과 신부의 만남과 같은 준비를 하는 것이 깨어 있는 것입니다.

둘째, 근신합니다. 사탄의 목적은 예수님과 의 만남을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변화를 기대하지 않게 합니다. 그리스도를 만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잊어버리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는지를 무감각하게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을 예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위해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에게 어떤 존재가 되는가를 예배로 간주하신다.”

깨어서 자신을 근신하는 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성도의 삶입니다.

셋째, 더 나아가 무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낮에 속한 사람들이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가슴받이 갑옷을 입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씌시다”(8절).

엄격한 훈련을 통과한 군인만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깨어 있든, 자든, 함께하는 자신을 늘 무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나옵니다. 은혜의 세 가지 요소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깨어 있도록 돕습니다. 소망은 우리가 무장하도록 돕습니다. 사랑은 우리가 근신하도록 돕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장래의 부활만 약속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 있든지 자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혼이 구원에 이르는 증인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깨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고, 그리스도와 함께 근신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무장되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십시오. 많은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부활과 능력을 전하십시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2023 온누리회복축제를 앞두고

내 영혼의 나침반을 찾아서!

5월 17~19일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

2023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5월 17일(수)부터 19일(금)까지 오전 10시부터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과 온라인(유튜브 실시간중계)으로 진행된다. 이번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스스로 불안한 감정과 정신적인 고통을 해결하도록 돕는 다양한 돌봄과 치유 방법을 소개한다. '감정 돌봄', '정신 돌봄', '영혼 돌봄'을 주제로 전문가 8인의 강의를 이어진다. 이기원 목사(회복사역본부장)가 2023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의 유익과 그 의미를 설명했다. 다음은 이기원 목사와 일문일답.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개할 것입니다.”

‘영혼의 나침반’이라는 주제가 인상 깊습니다. 그의 말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며 불안과 우울, 절망을 호소하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특히 요즘 청년들은 고용불안,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에 의하면 청년 자살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나아갈 길과 방향을 잃고 헤매는 성도들에게 ‘영혼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을 소개해야 합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면 어둠의 터널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깊은 만남과 교제를 나눌 때 감정, 정신, 영혼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붙들고, 그분을 향하여 살아야 합니다. 앞길이 막혀 버린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일지라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계속해서 나아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서 ‘영혼의 나침반’이라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이번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의 키워드가 ‘치유’, ‘돌봄’, ‘회복’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치유와 돌봄, 회복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입니다. 치유는 단기적으로 일어납니다. 개인이 가진 마음의 상처, 과거에 겪은 일로 생긴 트라우마들을 치료해주는 일을 치유라 할 수 있습니다. 상처

와 트라우마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기 때문에 치유를 통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도록 도와야 합니다.

치유에 더해서 회복도 필요합니다. 회복은 장기적으로 이뤄집니다. 단기적으로 치유를 받았지만, 우리의 환경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유를 넘어선 참된 회복은 예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참된 회복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고 지지하는 일이 회복사역입니다.

돌봄은 ‘회복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는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온전히 회복되기까지 이뤄지는 모든 치유와 상담, 도움이 돌봄입니다. 돌봄은 ‘감정 돌봄’, ‘정신 돌봄’, ‘영혼 돌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돌봄이 이번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의 요일별 주제입니다.”

풍성한 강의와 간증,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소개해주시고.

“이번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의 핵심은 ‘감정 돌봄’, ‘정신 돌봄’, ‘영혼 돌봄’ 이 세 가지 돌봄입니다. 감정, 정신, 영혼을 통합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세 가지 돌봄을 세세하게 설명하고 다루기 위해서 요일별 주제로 정하고,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셨습니다.

첫날 주제는 ‘감정 돌봄’입니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감정에 압도당하고, 쉽게 우울해지거나 불안해집니다. 첫째 날에는 ‘감정 돌봄’을 주제로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권수영 교수님(연세대 상담코칭학과)이 ‘나쁜 감정은 나쁘지 않다’를 주제로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다스려야 하는지를 소개할 예정입니다. 박상미 대표님(더공감마음학교)의 강의 ‘우울한 마음도 습관입니다’를 통해 습관이 된 우울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남은영 교수님(서울여대 아동학과)은 ‘감정코치’라는 주제로 감정에 관한 깊이 있는 강의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둘째 날 주제는 ‘정신 돌봄’입니다. 현대사회에는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마음의 상처와 스트레스, 트라우마는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둘째 날에는 이러한 정신적인 고통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는지 심도 깊은 돌봄 방법들을 설명합니다. 채정호 교수님(서울성모병원

원 정신의학과)이 ‘고통의 곁에 우리가 있다면’을 주제로 트라우마를 어떻게 수용하고 회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할 것입니다. 남윤영 박사님(한마음정신회복예배 상담의)은 ‘스트레스 과잉 시대의 정신건강’을 주제로 스트레스, 우울, 자살 충동 등에 관한 실제적 사례와 함께 회복 방법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셋째 날 주제는 ‘영혼 돌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정신적인 고통, 상처, 스트레스, 트라우마 등에서 회복되기 쉽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면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가 되고, 정신적으로 연약한 상태가 지속되면 부정적인 감정에 쉽게 압도당합니다. 그렇기에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영혼을 어떻게 돌볼 것인가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만홍 교수님(로템정신과의원 원장)이 ‘자아돌봄에서 영혼돌봄으로’라는 주제로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영적으로 회복시킬 통합적인 방법을 제시할 것입니다. 채규만 교수님(성신여대 심리학과 명예교수)은 ‘임마누엘 치유와 마음 돌봄’을 주제로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과 교류하며,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할 것입니다. 저는 ‘고통의 치유와 영적 돌봄’을 주제로 강의합니다. 20년 동안 회복 사역을 섬기면서 경험하고 배운 영적 회복 방법을 소개하려 합니다. 단순한 치유를 넘어 영적으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 전 세계에서 어떤 회복사역들이 이뤄지고 있는지, 최근 회복사역의 동향 등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진정한 회복을 소망하는 성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십시오.

“코로나19를 거치며 언택트(Untact) 시대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수 없고, 사람들과 접촉이 어려워지고, 관계가 단절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로움, 고립감, 불안, 우울을 호소하는 성도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위한 치유와 돌봄의 길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적, 정신적,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영혼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과 깊은 교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과 깊은 만남을 방해하는 우리 안의 고통과 상처, 트라우마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번 온누리회복축제 ‘영혼의 나침반’에 오셔서 진정한 돌봄을 배우고,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회복하며, 영혼의 나침반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회복축제 문의: 02-3215-3532

55만 장병들과 다시, 그리고 새롭게!

군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용사들 ‘군선교팀’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코로나19와 동행이 어느새 4년째다. 그 시간 동안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 모든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예배, 모임, 아웃리치, 사역 등 기존과 달라진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했다. 이제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주기적으로 발생하거나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 시기 또 한 번 비상을 꿈꾸는 사역팀이 있다. 대한민국 55만 장병들과 다시, 그리고 새롭게 꿈을 꾸는 ‘군선교팀’이다. 그들은 군 복음화를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용사들이다.

/ 김현준 기자 khj@onnuri.org



2022년 도하은교회 성탄절 예배(왼쪽),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관람 중인 병사들(오른쪽).

3%. 선교에서 이 숫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선교학에서 보통 복음화율이 3% 이하를 ‘미전도종족’이라고 정의한다. 미전도종족이 먼 나라나 우리와 관련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말이 달라진다.

2005년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년세대 복음화율이 18%였다. 그런데 2022년 한국리서치 정기조사에서는 14%로 4% 하락했다. 그래도 이 정도면 우리나라 청년세대를 미전도종족으로 정의하기에는 이르지 않은가? 여기에 반전이 있다. 기독교인 대학생(청년) 58%만이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결과를 대입하면 우리나라 청년세대 6%만 교회에 출석한다. 어느새 한국의 청년세대도 미전도종족으로 변하고 있다.

그렇다면 청년세대를 더 많이 전도하면 될 일 아닌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최근 국가인 권위원회에서 개신교사립대학교에서 졸업조건으로 채플 이수율 의무조항으로 두고 있는 학사운영이 개인의 종교자유 침해 행위라고 지적했다. 비록 지금은 권고 사항이지만, 언제 의무 사항으로 변할지 아무도 모른다. 학내 전도를 금지하는 대학교도 늘고 있다. 학내 순찰을 강화하고 동아리에서 전도하면 제명하는 등 전도 기회가 상당히 줄고 있다. 이와 같은 흐름이 계속되면 청년세대 복음화율이 3% 이하가 되는 날이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다.

시대와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팀이 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 (이하 군선교팀)이다. 군선교팀은 55만 장병들을 예수님게로 돌이키고, 그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돕고 있다. 이를 위해 전국을 누비며 장병(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군선교팀에서는 군 교회와 협력해서 연 100여 차례 부대를 방문하고, 2만 명 가까운 병사들을 전도하

고 있다. 한 해 동안 군 장병 8천여 명에게 세례도 주고 있다. 1년 동안 6,800km를 이동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역하고 있었는데, 코로나19로 빼아픈 시기를 보냈다. 3월(밀집, 밀접, 밀폐)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군대이기에 코로나19가 발병하자마자 모든 외부와의 만남을 끊었다. 군선교는 물론이고, 민간 사역자들도 부대에 들어가지 못했다. 모든 예배와 모임이 멈췄고, 사역도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다. 지금이야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되었지만, 코로나19 초창기만 해도 온라인 예배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환경 또한 매우 열악했다. 온라인 예배 역량이 가장 부족한 곳이 바로 군대였다. 한국 교회는 코로나19에 발 빠르게 대응했지만, 군 교회는 여러 사정으로 대응이 부족한 게 사실이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은 바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CGN 드림온플러스 장비 지원’, ‘군인 교회 유튜브 영상 촬영 장비 지원’, ‘군종 목사단 및 민간인 선교사 초청 교육 세미나’ 등을 실시했다.

온누리교회 군선교팀에서 우리나라 군종 목사 250여 명 중에서 110명에게 영상 촬영 장비를 후원했다. 마스크 20만 장을 후원하는 일에도 헌신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그 누구보다 아낌없는 지원을 했다.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군대도 조금씩 닫힌 문을 다시 열고 있다. 그 덕분에 군선교팀도 다시 힘을 내고 있다. 그토록 기다렸던 장병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설렘이 가득하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소식만 들었던 장병들의 손을 잡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누구보다 기다리고 있다. 55만 장병들과 함께 다시, 그리고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군선교팀에서는 코로나19로 하지 못했던 사

역들을 다시 준비하고 있다. 군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사역은 CGN이 제작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상영이다. ‘MZ세대 장병들에게 서서평 선교사의 생애가 담긴 영화가 얼마나 인기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반응이 정말 뜨겁다. 예수를 믿지 않는 장병들이 이 영화를 보고 교회에 출석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김진휘 병사는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보고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니는지를 조금은 알 수 있었다”면서 “죽을 만큼 힘든 상황에도 선교하는 그 모습이 정말 멋있어서 교회에 관심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신유진 병사는 “교회에 안 나간 지 5년 넘었는데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덕분에 다시 교회에 가고 싶어졌다”고 털어놨다.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상영하는 부대마다 주일예배 인원이 늘고, 세례 인원도 증가하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사단과 군 교회에서도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를 상영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또 다른 중점 사역은 ‘데이빗 스쿨’이다. 데이빗 스쿨은 입대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감을 고취시키는 사역이다. 지난해 30여 명이 수료했고, 올해 9월 개강할 예정이다.

안상현 장로(군선교팀)가 “기독교인 청년들이 입대할 때 건강하게 잘 다녀오라고만 하면 안 된다”면서 뜻밖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이단들은 군대를 전도의 황금어장이라 여기고 입대하는 청년들을 무장시켜서 보내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에서도 기독교인 청년들이 사명자의 마음으로 군대에서 열심히 믿음생활 하고, 안 믿는 청년들을 전도하도록 철저하게 훈련해야 합니다.”

군선교팀에서는 말씀을 나누는 일에도 앞장서고 있다. <생명의 삶>을 20개 부대 교회에 매

월 650권을 전달하고 있고, 공동체 성경읽기(PCAK)를 협력 사단과 함께 진행 중이다. 장병들이 성경읽기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매월 커피 쿠폰을 선물하며 격려하고 있다.

이 외에도 연극 ‘스크루테이프’ 공연, 일대 일제자양육, 해외 파병부대(동명, 아크, 청해부대) 지원, 세례 및 전도 집회, 도서 지원, 성경책 지원 등을 계획하고 있다. 군 복음화에 앞장서는 군선교팀의 노력을 인정받아 지난 2021년 2월에는 국방부 감사장을 받았다.

군선교팀이 다양한 섬김과 사역을 감당하려면 몸이 두 개라도 부족할 것 같다. 그런데 전국적인 사역을 이어가는 군선교팀원이 14명뿐이다. 이에 대해 김동수 팀장은 “전국에서 사역을 요청하는데 감당할 예산도 부족하고, 섬기는 사람도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청년선교에 헌신한 동역자들의 발걸음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군선교팀 총무 김재신 집사(경기A공동체)는 “장병들과 함께 예배드리면 오히려 우리가 더 큰 힘을 얻는다”면서 “군대에서 장병들과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한지를 함께 경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반주자 박석현 형제(안양 열매맺는교회)는 “10여 년 전 군선교팀에 반주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섬기게 됐다”면서 “섬길수록 군선교팀이 얼마나 귀한지를 새삼 느끼고 있다”고 고백했다.

55만 장병들과 다시 그리고 새롭게 ‘군 복음화’라는 꿈을 꾸는 군선교팀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고, 동역자가 되자.

문의: 010-6340-5234

군선교 기도모임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선교관 101호
후원: 온누리교회 군선교
하나은행 573-910003-56705

학교폭력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부모와 선생님의 역할과 학교폭력의 상관성



배시은 박사
(온누리상담센터 수퍼
바이저, 개신대학원대
학교 상담심리학과
겸임교수)

최근 언론에서 유명인 혹은 유명인 가족의 학교폭력 이슈를 자주 접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관한 드라마가 인기를 얻으면서 관심이 더 해지고 있다. 드라마에서 본 학교폭력 장면은 너무 끔찍하고 잔인했다. 그 드라마는 폭력에 맞선 폭력으로 복수하면서 끝이 난다. 학교폭력은 과거에도 존재했다. 하지만 최근 학교폭력은 학교 담장을 넘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학교 담장을 넘은 학교폭력의 원인을 알아보고, 기독교인으로서 학교폭력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학교폭력 가해 이유

기독교인 A씨는 두 아들을 키우고 있다. 중학생 첫째를 한 동성 친구가 지속적으로 신체적 만지고 따라다녔다. 거절하고 피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괴롭혔다. 평소 A씨는 두 아들에게 친구들이 공격하면 방어가 최선이라고 교육했기에 첫째는 부모의 가르침을 따라 1년 동안 괴롭힘을 당했어도 참았다. 하지만 더는 참을 수 없어서 그 친구를 때렸다.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 당했다. 초등학교 자녀를 둔 B씨는 평소 아이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며 말씀으로 엄격하게 훈육했다. 그러나 정작 B씨의 자녀는 잘난 척한다고 친구들에게 사이버 따돌림을 당해 학교생활에 흥미를 잃고 결국 전학했다. C씨는 현재 대학을 졸업한 취업 준비생이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그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 끔찍하고 괴롭다. 같은 반 친구들이 한 친구를 집단 따돌림 하는 것을 보고 도와줬는데, 그 일로 자신도 학년이 바뀌기 전까지 집단 따돌림을 당했다. 이 사례들은 기독교인이 흔하게 겪거나 목격하는 학교폭력이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은 학교폭력에 대해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뿐 아니라 언어폭력, 사이버 폭력을 비롯해 정서적인 폭력행위까지 광범



위하다.

청소년 폭력예방 재단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가해 이유는 장난 40%, 이유 없음 23%, 오해와 갈등 12% 순이었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가해 학생의 심리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개인, 가정, 또래)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요인이다. 충동성과 우울, 불안과 자기주장성, 스트레스 대처와 공감능력 등이 있다. 둘째, 가정 요인이다. 애착의 문제를 가르킨다. 셋째, 또래 요인이다. 또래동조성이 그것이다.

충동성은 자극을 추구하는 성향,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는 자기조절의 문제를 만든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경우 충동성이 높다. 청소년 우울은 자기비난과 무가치감이 반사회적 행동, 공격성, 사회적 철회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불안은 청소년의 발달과정에서 신체적 변화와 자아정체감의 위기와 혼란을 경험하면서 나타난다. 입시경쟁에서 시험불안이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 자기주장성은 사회에서 승인 가능한 긍정적 자기주장성과 성숙하지 않은 자기주장성으로 나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의 경우 과격하고 공격적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그 옆에서 동조하는 학생들은 괴롭힘에 참여하지 않으면 자신도 똑같이 괴롭힘을 당할까 두려워 동조하는 낮은 자기주장성을 보인다. 스트레스 대처에서 가해 학생들은 회피적으로 혹은 대상에게 심리적, 신체적 위해를 가하거나 공격적 행동을 보인다. 공감 능력에서는 놀랍게도 가해 학생들이 타인의 마음 읽기 능력이 높다고 보고된다. 공감 능력이 상대를 어떻게 괴롭히면 고통을 겪을지를 알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 타인을

조종하고 이용하는 방향으로 사용된다.

애착은 초기양육과정에서 양육자가 아동의 필요에 민감한 지지와 보호를 보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된다. 애착은 아동의 정서조절능력, 주의조절 확립, 자기감 발달에 영향을 주고, 자신과 타인에 대한 마음 읽기 능력과 관계에서 적절한 친밀감과 균형을 갖도록 해서 적응적으로 살게 한다. 애착은 크게 안정형과 불안정형으로 나뉘는데 불안정한 애착을 형성하게 되면 우울, 불안, 분노, 자기개념의 혼란 등이 나타나고, 부모의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경험한 아이들은 타인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심맹(mind blindness) 상태가 된다. 불안정한 애착을 보이는 아동이 청소년이 되면, 부모에게서 안정감을 얻지 못하고 또래 집단에서 안정을 취하려 한다. 많은 연구 결과에서 청소년과 부모의 관계가 학교폭력 예방에 중요한 변인으로 보고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들과 동조자들의 또래동조성은 집단문화에서 사는 청소년들이 또래 집단에서 승인되는 행동을 채택하려고 하는 경향성을 의미한다.

학교폭력 이렇게 예방하자!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학교폭력 예방에 매우 중요하다. 학령기 및 청소년기 아이들이 성장하는 가정에서 학교폭력 가능성이 형성되고, 그 가정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질이 심리적 상태에 영향을 주며, 더 나아가 또래 집단에도 영향을 준다. 심리학에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질이 자녀의 필요와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고, 공감하며, 적절하게 좌절을 경험하게 하는 부모가 건강하다고 이야기한다.

기독교인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질은 부모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의 질을 경험하느냐에 따라 전수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나(부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부모)의 삶에 어떻게 동행하시는지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부모로서 자녀의 마음을 공감하는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한다.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하지 않게 하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민이 있을 때 부모에게 다가가 말할 수 있는 상대인지, 자녀가 당면한 고민을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지, 부모가 자녀의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불가피한 이유로 가정이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줄 수 없다면, 학교, 학원, 교회 선생님이나 교역자 등 아이들과 접촉하는 건강한 어른들이 그 역할을 해줘야 한다. 학교폭력 관련 드라마 주인공이 “자신의 삶에 좋은 어른이 있었다면 삶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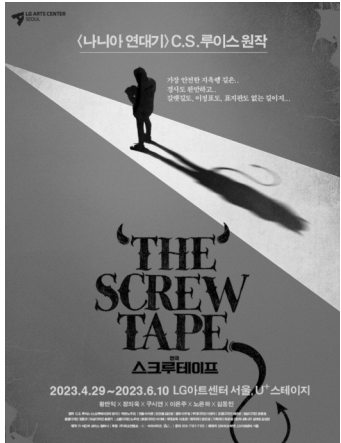
부모와 아이들이 속한 집단으로서의 공동체 가치도 중요하다. 폭력은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으로 창조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악이다. 피해자는 폭력에 희생되고, 인간됨을 존중받지 못하며, 가해자는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스스로 인간됨을 부정한다. 이 악의 순환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선한 연결 고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학교, 교회, 가정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점검해야 한다. 아이들에게 경쟁과 학력 우선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에 두고 있기에 불안, 우울,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있다.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협력과 평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 예수님의 평화는 비폭력과 십자가 희생과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이다. 함께 살아가는 사회에서 갈등은 불가피하다. 갈등을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줘야 한다. 폭력에 폭력으로 맞대응하지 않고, 비폭력으로 상대를 대하는 방법을 어른들이 몸소 가르쳐야 한다. 갈등을 효과적으로 대하면서 건강하고, 가치 있고,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도록 가르쳐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아이들을 자라게 하는 지식은 기본이고, 정서와 공감, 영성 교육이 필요하다. 자신과 타인의 정서에 민감하게 공감하는 능력이 개발되도록 도와야 한다. 자신보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고, 돌보는 태도를 기르도록 해야 한다. 아이들이 부모 혹은 선생님들과 안정적이고 건강한 관계를 기반으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자신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도와야 한다. 하나님 닮아가는 삶을 소망하도록 인도해야 한다.

연극 ‘스크루테이프’ 앙코르 공연

6월 10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 U+ 스테이지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각색한 연극 ‘스크루테이프’가 6월 10일까지 LG아트센터 서울(강서구 마곡중앙로 136) U+

스테이지에서 앙코르 공연한다. LG아트센터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기독교 연극이라 더 의미가 크다. 연극 ‘스크루테이프’는 배우 추상미, 뮤지컬 배우 겸 연출가 이석준 부부가 설립한 ‘야긴과보아스 컴퍼니’에서 제작한 첫 번째 연극이다. 지난 1월 6일부터 2월 4일까지 대학로 TOM2관에서 초연했는데, 전회 매진을 기록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야긴과보아스 컴퍼니에서는 연극 ‘스크루테이프’ 앙코르 공연을 기념해 온누리교회 성도들에게 할인권을 제공한다. 교회 로비에서 공연 리플렛과 할인 티켓을 받으면 연극을 40% 할인된 가격으로 볼 수 있

다. 할인권 1장당 4명까지 적용받을 수 있다.

연극 ‘스크루테이프’는 원작을 각색해 세 명의 악마가 스크루테이프를 연기하고, 편지 대신 인터넷 라이브 스트리밍 방송 중계라는 현대적인 무대를 선사한다. 배우 황만익, 구시연, 이은주, 노은하, 김동민이 출연한다. 공연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오후 8시, 수요일 오후 4시, 8시, 토요일 오후 3시, 7시다. 일요일에는 공연이 없다.

예매: 인터파크 티켓, LG아트센터 서울

문의: 010-7131-7151,
070-4513-1874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대학청년부 ‘가정의 달 블레싱’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섬김

대학청년부 ‘가정의 달 블레싱’이 시작된다. 대학청년부 8개 공동체 18개 팀이 참가한다.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자녀, 선교사 부모, 이주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을 찾아가 선물 전달, 예배, 체험학습, 멘토링 사업, 길거리 전도 등을 한다.

여호수아청년부 5월 6일(토) 파주 은빛공동체, 13일(토) 천사의 집, 14일(일) 남대문5가, 21일(일) 안산M센터, 27일(토) 허그브릿지, 명진들 꽃사랑마을, 간성영세교회, SNS청년부 13일(토)과 20일(토) 안산M센터, 15일(월) 우리들학교, 20일(토)

아프간팀, 요셉청년부는 28일(일) 포천하랑센터, W청년부 27일(토) 인천동산교회, 갈렙청년부 6일(토)과 7일(일) 월만한교회, J4U청년부 20일(토)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허브대학부는 27일(토) 청운노인복지센터, 하늘대학부 20일(토) 애란원을 섬긴다.

지난해 대학청년부 ‘가정의 달 블레싱’에는 8개 공동체 15개팀 214명이 참여했다. 독거노인, 다문화가정 자녀, 선교사 부모 등 855명을 섬겼다.

/ 홍하영 기자 hha0@onnuri.org

러브소나타 선교 포럼 열린다

일본 실행위원, 비전교회, TIM 선교사 등 참석

러브소나타 선교 포럼(Love Sonata Mission Forum)이 5월 8일(월)부터 11일(목)까지 제주 Acts29 훈련센터와 제주항공우주호텔에서 열린다.

이번 러브소나타 선교 포럼은 러브소나타의 비전을 재확인하는 자리다. 지금까지 동역해온 일본 실행위원과 선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며, 러브소나타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모색할 예정이다. 일본 실행위원회(러브소나타 협력교회), 비전

교회(동경, 오사카, 우에다, 요코하마, 야치요, 나고야, 교토) 목회자, TIM 선교사 등 60여 명이 참석한다.

러브소나타 선교 포럼은 8일 개회 예배와 오리엔테이션, 9일 선교 포럼, 10일 한국 문화 체험, 11일 폐회 예배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 이재훈 담임목사 ‘사도행전적 바로 그 교회’, 최성민 목사(대학청년본부장) ‘교역자의 세대교체’, 김하중 장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기도’를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다.

대학청년부 공동체별 수련회

5월 12~14일 하늘대학부, Pole2대학부

5월 대학청년부 공동체별 수련회는 허브대학부, CH PLUS청년부, 하늘대학부, Pole2대학부가 한다. 5월 12일(금)~14일(일) 하늘대학부와 Pole2대학부가 수련회를 한다. 하늘대학부 수련회는 ‘Spotlight’를 주제로 소망수양관에서 막 오른다. 임사라 선교사, 김숙경 소장, 이서진 목사, 홍성주 선교사, 최종현 목사가 강의한다. Pole2대학부 수련회는 ‘Stigma’를 주제로 대학로 이룸에서

한다. 최성민 목사, 이서진 목사, 오현교 전도사, 신주용 전도사가 말씀을 전한다.

대학청년부 상반기 수련회는 4월과 5월 공동체별로 열린다. 4월에는 W청년부, J4U청년부 수련회가 있었다. 5월 5일(금)~7일(일)에는 허브대학부와 CH PLUS청년부 수련회를 했다. 이 외 대학청년부 공동체 수련회는 하반기에 한다.

문의: 02-570-7521

5월 화요성령집회 ‘흠, 스위트 흠’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5월 화요성령집회 ‘흠, 스위트 흠’이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16일, 30일)과 비전홀(9일, 23일)에서 막 오른다. 온누리교회 대학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도 참여할 수 있다.

화요성령집회 ‘흠, 스위트 흠’에

서는 9일 정한호 목사 목사 ‘영적인 축복이 흘러가는 곳(룻 4:7~17)’, 16일 최성민 목사 ‘사랑으로 질서를 세워가는 곳(벧전 3:1~7)’, 23일 최성민 목사 ‘하나님의 섭리를 이어주는 곳(창 45:1~15)’, 30일 이서진 목사 ‘기도로 자녀를 세워가는 곳(삼상 1:1~11)’을 주제로 설교한다.

‘행복드림콘서트’ 막 오른다

5월 8일 18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

60세 이상 부모님을 위한 맞춤형 도잡회 ‘행복드림콘서트’가 드디어 막 오른다. 8일(월) 오후 6시 서빙고온누리교회 본당에서 진행된다.

이번 행복드림콘서트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대면으로 진행되는 첫 집회다. 세시봉 윤형주와 크루스(가스펠 보컬 밴드)의 공연, 이재훈 담임목사 메시지, 결신 등의 순서가 이어진다. 참석자들은 오후 5시 20

분부터 본당에 입장할 수 있다. 요청자들은 행복드림콘서트에 올 때 반드시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를 써와야 한다.

행복드림콘서트에 앞서 부모님을 초청한 요청자(자녀)들은 지난 4월 24일(월)과 5월 1일(월) 기도모임을 했다. 문의: 카카오톡 채널 ‘행복드림 2023’ 채팅창

/ 정현주 기자

젊은부부학교 참가자 모집

젊은부부학교 55기 참가자를 모집한다. 6월 3일부터 6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3시 과천 로고스센터(1주차), 서빙고온누리교회 경찬홀(2주차), 두란노홀(3~4주차)에서 열린다. 결혼 12년 차 이하 선착순 40가정이 대상이다.

수강신청은 아이스쿨이나 젊은부부학교 카카오톡채널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가정 당 20만 원. 5월 12일까지 입금하면 회비를 2만 원 할인해 준다.

젊은부부학교는 행복한 결혼생활에 대한 이론과 실재를 경험하고, 성경적인 바른 가정을 세우도록 돕는 가정회복 훈련프로그램이다.

문의: 010-2742-2397(남편),
010-8632-6183(아내)

‘사모 블레싱(blessing)’

6월 15일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

목회자 사모들을 위한 ‘사모 블레싱(blessing)’ 세미나가 6월 15일(목) 양재온누리교회 기쁨홀에서 오전 10시에 열린다. 사모 블레싱(blessing) 세미나는 사모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는 특별한 잔치다. 김형석 박사(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 ‘신앙이란 무엇인가’, 김다위 목사(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사모, 머무는 자로의 복된 부르심’을 주제로 강의한다. 이한진 트롬본 연주자(상명대 대학원 겸임교수)의 특수도 있다.

전국의 목회자 사모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예비 사모, 선교사 사모도 참여할 수 있다. 회비는 2만 원. 6월 8일까지 신청하면 회비를 1만 원 할인해준다. 문의: 02-2078-3279

소망교도소 일대일 제자양육 수료식

소망교도소 24기 일대일제자양육 수료식이 지난 4월 27일(목) 열렸다. 재소자 43명이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수료했다.

소망교도소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에는 사회선교부 새사람사역팀 소속 일대일 양육자 16명이 지난 3월 2일부터 4월 27일까지 매주 목요일 소망교도소를 방문해 재소자들과 일대일제자양육을 했다.

재소자 양 씨는 “온누리교회 새사람사역팀원들이 일대일제자양육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도록 친절하게 알려주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했다.

박용식 팀장(사회선교부 새사람사역팀)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재소자들을 기억하며 계속 중보기도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 모집

드림어게인스쿨 참가자를 모집한다. 5월 20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주 오후 4시 30분 서빙고온누리교회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수강신청은 5월 20일까지 아이스쿨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회비는 6만 원.

드림어게인스쿨은 이혼의 충격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미래의 삶을 준비하도록 돕는 과정이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기쁨의 회복’, ‘자아상 회복’, ‘뜻다한 우리들의 이야기’ 등을 주제로 강의를 이어진다.

문의: 010-2539-5665

두플러스 런칭 1주년

함께해서 감사해

두플러스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여러분 덕분에 두플러스가 1주년을 맞이했어요.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이벤트를 함께 즐겨 주세요!

1 EVENT



포인트 모아 땡스 굿즈

태블릿 거치대
+นอน 슬립패드
+책 1권

300명

매일 포인트를 차곡차곡 쌓아
1주년 기념 굿즈를 신청하세요

2 EVENT



땡스 챌린지

BHC 치킨 10명
CU 상품권 20명
스타벅스 음료 20명

나를 위한 땡큐 카드를 뽑고
인스타에 인증하면 선물까지!

3 EVENT



1+1 경품 추첨

갤럭시탭 1명
에어팟 2명

1년 이용권 or 단체 구독을
신청하면 경품이 따라와요

참여 기간 2023년 5월 1일(월) ~ 5월 31일(수)

당첨자 발표 2023년 6월 7일(수) 두플러스 공지사항 게시판

이벤트 참여하기!

스마트폰으로 QR 코드를 스캔해 보세요



du+ duplus
복음을 읽는 새로운 습관, 두플러스



PC와 모바일을 동시에. 지금 **두플러스 Q** 를 검색하세요!

홈페이지 www.du.plus

모바일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로드 하세요.

